

'2018 영화' 마블부터 톰아저씨까지...시리즈물의 컴백



새해가 밝았고 2018년 영화시장에도 기쁜 소식이 생겼다. 지난 4일 영화 '신과 함께: 죄와 벌' (2017)이 역대 2번째로 천만 관객을 돌파한 것. 이에 한국영화장르가 한층 더 넓어졌다는 평가와 함께 올해에 개봉할 예정인 시즌 2를 고대하는 관객이 늘고 있다.

이렇듯 시리즈물의 가장 큰 매력은 영화에 대한 재미를 불러온다는 점이다. 국중 캐릭터의 서사를 재창조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다양한 주제로 확장해나감에 더 커진 재미와 깊은 감동이 관객들을

기대하게 하는 것. 개봉을 앞두고 다수의 관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시리즈 영화를 모이냈다.

◆ 한국 영화: 배우들의 힘이 더해져

조선 최고의 명탐정 김민(김명민)과 그의 친구 서필(오달수)이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로 또 한번 극장가를 강타할 전망이다. '조선명탐정: 각시부구꽃의 비밀' (2011)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 (2014)에 이은 '조선명탐정' 세

번째 시리즈인 것. 특히 제작 KBS2 드라마 '쌈 마이웨이'를 통해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김지원이 이들과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는 의문의 여인으로 합류, 김명민과 오달수의 콤피트에서 색다른 케미스트리를 발휘한다 여기에 의문의 남자 혹은 포로 합류한 배우 이민기 역시 극의 중심을 이끈다는 점도 주목된다. 2월 개봉 예정.

서울 최고의 탐정 콤피도 있다. '탐정: 더 비기닝' (2015)에서 형사와 형사 지망생이었던 강대만(권상우)과 노태수(성동일)가 탐정사무소

한국 영화, 조선명탐정·탐정2 등 개봉예정 외국영화, 메이즈러너·미션 임파서블 등

를 개업, 진짜 탐정이 되어 탐을 쥐게 하는 추리를 펼치는 '탐정2(가제)'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 것. 여기에 맨사 회원이자 사이버 수사대 출신인 여치 역의 이광수까지 합류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특히 '비행: 사라진 여자' (2016)를 연출한 이연희 감독의 차기작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올해 개봉 예정.

그리고 2018년 첫 천만의 주인공 '신과 함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제작 당시 '신과 함께'는 1편 죄와 벌과 2편 인과 연으로 구성돼 지금까지 400여 원대 제작비가 들었다. 관객 수가 1200만 명이 들어야 손익분기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편만으로도 천만관객들과는 영광을 얻었으니 2편도 걱정 없다. 우리들의 '바블리' 마동석이 출연하기. 더불어 2편에서는 차사들의 과거와 해인택(주지훈)의 이야기 원작과 가깝게 표현된다고. 원작과 거리가 멀었던 1편과 달리 2편은 원작 팬들이 기대해도 좋을 만하다. 8월 개봉 예정.

◆ 외국영화: 할리우드 스케일에 이야기 풍성함이 더해져

달려라, 질주하라.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미로와 위키드에 맞서는 이

들의 고군분투를 그린 미스터리 액션영화 '메이즈러너'의 마지막 시리즈 '메이즈러너: 데스큐어'가 역대급 스케일을 보여준다. 독특한 설정과 젊은 배우들을 내세워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던 '메이즈러너' 시리즈는 1편과 2편 모두 국내에서 200만 명을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큰 사랑을 받았던데 이번 마지막편이 더욱 기대된다.

특히 달린 오브리언, 토마스 브로디-생스터, 이기홍 등 주연 3인방이 내한해 팬들과 만나며 영화의 흥행 열기에 더욱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예고편만 보아도 카 액션은 물론 고공비행 액션 폭발신 등 전편들에 비해 강해지고 화려해진 '메이즈러너: 데스큐어' 4DX로 만나면 다면 재미가 더 크게 발휘될 것. 1월17일 개봉.

개봉에 앞서 예비 천만 영화로 꼽혀진 작품이 있다. 전 세계 마블 팬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어벤저스: 인피니트 워'가 마침내 베일을 벗는 것.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헐크, 토르, 호크아이, 블랙위도우, 엔트맨, 비전, 워머신, 윈터솔저, 닥터 스트레인지, 스파이더맨 등 기본 어벤저스 멤버부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의 시리즈 스타로드, 가모라, 네블라, 로켓, 그루트, 드랙스까지.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마블 히어로들이 총출동할 뿐 아니라 역대 최강적 타노스까지 등장한다. 또한,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2016)에 이어 이번 영화에서도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의 불꽃 튀는 대결을 볼 수 있다고. 4월말 개봉 예정.

2018년에는 슈퍼 히어로들의 액션에 이어 '진철한 톰아저씨' 표 액션도 있다. OST만 들어도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션 임파서블'의 6번째 시리즈가 나오는 것. 1996년 1편이 나온 이후부터 지난 2015년까지 총 다섯 개의 시리즈가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히트를 쳤다. 특히 이번 시리즈에는 할리우드 대표 마블배우이자 DC 무비의 슈퍼맨 '헨리 카빌'이 출연해 더욱 기대를 모은다. 매번 상상을 초월하는 액션과 첨단 무기로 관객을 놀라게 한 '미션임파서블'이 또 어떤 볼거리를 선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7월 개봉 예정.

영화에는 좋은 영화가 있고, 보는 이가 좋아서 열광하는 영화가 있을 텐데 시리즈물을 찾는 관객들은 대부분 후자에 속한다. 세계를 맞아 바람이 있다면 올해는 영화에 열광하는 관객들이 조금 더 늘어나길 바란다. 마블, DC 등 할리우드 시리즈물의 명성만큼, 한국영화시장에도 시리즈가 정착할 수 있길.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좀 더 나아지길 더 욱심을 부리지면, 영화가 전하는 희망이 세상에도 퍼져 숨통이 트일 수 있는 한국영화 시장이 되길 기원한다.

“미스터리+유쾌” ‘연남동539’, 웃픈현실 공감드라마



MBN 새 드라마 연남동 539가 순조로운 첫 출발을 시작했다. 지난 10일 첫 방송된 시추에이션 드라마 연남동 539 1회 방송에서는 줄곧 비혼, 취업난 보이소피즘 등 현실적으로 와 닿는 소재들이 최근 히트작으로 떠오른 서울 연남동을 배경으로 펼쳐졌다. 또한 각각의 개성 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려지며, 앞으로 연남동 비혼 클럽 세어하우스에서 펼쳐질 유쾌하고

다양한 사건들을 속도감 있는 전개로 그려내며 극에 대한 몰입도를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이다. 우리 현실을 바탕으로 한 일상 드라마라는 점이 흥미를 유발한 데다, 배우 이민식과 이종혁, 오윤아 등 팔색조 매력을 가진 배우들의 연기 변신도 눈길을 끌었다. 이들의 개성 강한 드라마답게 순조로운 시작을 한 연남동 539는 12부작으로 제작돼 시청자들과 만난다.

치는 연기로 예측 불가능한 재미를 이끌었다. 또한 각각의 캐릭터들이 녹록지 않은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흥미진진한 스토리도 예고하고 있어 공감을 자아냈다.

특히 이민식은 '코미언기의 원조 배우'란 타이틀에 맞게 편안하면서도 맛깔 나는, 믿고 보는 코미언기로 극을 이끌었고, 이종혁 역시 사명감과 정의로움으로 뽀빠리 '열혈 뽀빠리'로 분해 따뜻한 오지랖을 가진 상봉대란 인물을 자연스럽게 유쾌하게 그려냈다. 오윤아 역시 극 중 잘 나가는 피트니스 대표답게 차도너 포스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의외의 반전 코믹 요소도 눈길을 사로잡았다. 여기에 최준석 석도희로 완벽 변신한 고나은은 실감나는 현실 연기를, 양정원 역시 자신만의 통통 튀는 개성으로 무장해 캐릭터를 현실적으로 그려내며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 브라운관 첫 연기 도전장을 내민 가수 브라이언과 뮤지컬 배우 최우혁, 탄탄한 연기력 역시 그간 볼 수 없었던 색다른 매력으로 유쾌한 웃음과 재미를 선사했다.

한편, 3년 만에 부활한 정규 드라마라는 점에서 방송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드라마답게 순조로운 시작을 한 연남동 539는 12부작으로 제작돼 시청자들과 만난다.

‘감빵’ 2상6방이 알려준 가족愛...시청률 10% 돌파 비결



슬기로운 감빵생활 2상6방 시청자들의 가족사가 인방극장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지난 10일 밤 9시10분 방송된 tvN 수목드라마 '슬기로운 감빵 생활'

(극본 정보훈/ 연출 신원호) 13 회에서는 아들에게 간이식 수술을 해주는 문래동 카이스트(박호산 분)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문래동은 잠시 팔마(안창환 분)와 삼각관계를 이루는 듯했으나, 그에게 접견 신청을 한 아내(김선영 분)의 등장으로 반전을 안겼다. 문래동의 아내는 "네 아들이 죽어간다. 간 이식이 필요하다"며 피검사를 받아보라고 했고 결국 문래동은 아들에게 간이식 수술을 해주게 됐다.

하지만 아들은 범죄자 아버지를 몸서리치게 싫어하는 상황. "아버지 간은 죽어도 안 받겠다"는 아들 때문에 문래동은 아들과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쳤음에도 "아버지 아니다"라고 부인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평소 철없이 굴던 문래동도 아들 앞에서만큼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 것.

여기에 이날 방송에서는 한양이(규형 분)의 반전 과거도 공개됐다. 부잣집의 아들인 출만 일었던 한양은 한양포(엄태환 분)가 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워 외로운 유년시절을 보냈다. 특히 그는 자신을 신고한 사람이 얼마라는 사실을 알고 "절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다"라며 분노해 시신을 모았다. 하지만 그 시각 한양포는 아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회에서는 아들에게 간이식 수술을 해주는 문래동 카이스트(박호산 분)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문래동은 잠시 팔마(안창환 분)와 삼각관계를 이루는 듯했으나, 그에게 접견 신청을 한 아내(김선영 분)의 등장으로 반전을 안겼다. 문래동의 아내는 "네 아들이 죽어간다. 간 이식이 필요하다"며 피검사를 받아보라고 했고 결국 문래동은 아들에게 간이식 수술을 해주게 됐다.

이 외에도 이날 김재혁(박혜수 분)과 유대위(정해인 분)는 각각 여동생, 형과 서약했던 사이임을 털어놓으며 "여기 오니까 닭살 멘트가 저절로 막 나온다"고 이야기해 눈길을 끌었다. 평소에는 남보다 무심한 사이라도 위기에 닥쳤을 때는 언제든 가족뻘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킨 것.

이날 2상6방 수감자들의 에피소드들을 통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준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13회가 넘은 코리안 유료플랫폼가구 전국기준 평균 10.1%, 최고 12%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또다시 자체최고시청률을 경신한 상황.

이에 이제 단 3회만 남겨놓은 '슬기로운 감빵생활'이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지, 그리고 이 상상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늘의 순세 2018년 1월 12일 금요일 (음력 11월 26일)



▶**사슴** 사업 하다 보면 고전할 때도 있는 법. 조금해하지 말고 인내하는 자세도 필요할 때다. 2, 8, 12월생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입장이 난처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덕을 베풀라.



▶**사슴** 어두운 밤길을 가다 등불을 만나는 격. 동서로 부주하고, 수입도 짝퉁할 듯. 애정은 분명없이 행하면 재앙이 따르고, 내 자식이 아닌 자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양, 용, 돼지띠를 조심하라.



▶**황새** 마음속 변민을 잘 인내하는 것이 최상이다. 지금은 친제 상대일지라도 서서히 일어서는 운이다. 3, 9월생과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면 정신적, 금전적으로 손실이 생길 수 있으니 경계하라.



▶**사슴** 일 처리할 때 성급함은 금물이다. 달콤한 말에 현혹돼 책임을 다하지 못 하면 상응하는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천, 바, 사 성씨는 미뤄왔던 매대는 이뤄지나 손재수 있으니 조심하라.



▶**용** 가족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야 할 때다. 서로 제각기 행동한다면 남과 다를 것이 없다. 마음은 금방이라도 부자가 될 것 같으나 생각뿐이다. 바, 오, 자 성씨는 검은색은 피하고 푸른색으로 단장하라. 소화가 계통 조심할 것.



▶**뱀** 신의를 지키고,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가까운 눈보다 먼눈이 무섭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처신에 신중하라. 부부가 함께 활동하는 것은 좋으나 1, 9, 12월생은 오해받아 고심할 수 있으니 조심할 것.



▶**말** 마음을 안정시키고, 목표를 정해 차분히 대로 추진하면 차질이 없게다. 모든 문제는 흐르는 물처럼 풀어야 한다. 순리대로 행하라.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금물이다. 4, 5, 10월생 남쪽 일 해결될 듯.



▶**양**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온다. 마음은 항상 자신을 지배하는 주인이므로 안정을 찾아야 한다. 말, 쥐, 개띠를 좋아했다 마음으로 변하는 것은 남을 무시하는 성격 때문이니 스스로 마음을 갈고 닦음이 좋을 듯.



▶**원숭이** 기본적인 자제가 돼 있다면 사회에서나, 가정에 서나 존경받을 수 있다. 현대에는 양심이 울어아 집안이 부유해진다.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마음껏 활동하라. 여자라고 못 할 것 없지 않은가.



▶**꿩** 포부는 크나 모든 일이 체계가 잡히지 않고, 정리가 잘 되지 않으니 조금은 단정하라. 하지만 곧 풀리고 성취할 수 있다. 건강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때. 들뜬 기분에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돼지, 원숭이, 범띠가 도움줄 듯.



▶**개** 사람의 마음은 제각기 다르므로 상대방 마음 깊이까지 헤아릴 수는 없다. 심분 경계하는 자세로 접근하라. 1, 9, 12월생은 애정도, 금전운도 차차 안정되니 기본 전환해 새로운 설계 속에서 행복을 찾으라.



▶**돼지** 이렇까, 저렇까 많이 망설이는 수. 욕심이 많아 현혹될 염려가 있다. 자기 것만 위해 전력과 만족함을 얻으라. 돼지, 범, 뱀, 원숭이띠를 믿음은 좋으나 물질에 눈이 어두우면 관재수 따르니 욕심은 금물.